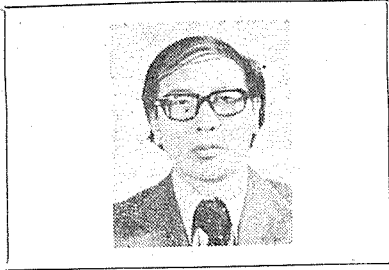


## 정신병의 치료는 어떻게 하나



鄭 東 哲

요컨대 노이로제이던 정신착란(분열증)이던 그 병의 근원은 불안한 까닭이며, 불안한 마음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표현되었는가에 따라 이 쪽이거나 저 쪽으로 분류되는 것을 알게 했으리라 믿는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발이 떨리며 저리고, 잠이 오지 않으며, 머리가 아프고 소화가 안되는 것들이 불안 때문이며 사람들이 죽이기로 공모를 하며 쑥덕댄다는 피해망상에 젖어 느닷없이 흥분발작을 일으키는 것도 불안때문이다.

따라서 정신과 의사에 의한 치료는 이 불안을 정확히 파악하고 치료하는데 모든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불안의 정체가 사람마다 다른 것은 물론일뿐 아니라 실은 그 불안이란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외국어로 표현되는 것과 너무 흡사하여 괴로워하고 있는 당사자는 그 뜻을 모르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가령 걸핏하면 속이 메달려 가슴이 울렁거리고 콕마혀 소화가 안되며 북통나는 경우를 예 들어보자.

우선 북통이란 외국어를 의사가 어떻게 환자에게 번역해 주는 것인가에 따라 명의가 되기도 하고 돌팔이가 되기도 할 것이다.

북통이란 단어는 의학사전에서 이렇게 번역돼있을 것이다. ① 위장을 포함한 복강내의 염증, ② 장폐쇄증 ③ 암 ④ 괴양, 그러나 좀더 자세한 사전은 ⑤ 결석 ⑥ 약물에 의한 통증이 첨가되어 있을 것이며 더욱 전문가적 사전을 펼치면 ⑦ 배고픔 ⑧ 체액(혈액)의 전해질 변화 ⑨ 화병에 의한 속아리(심인성 위장반응)등으로 세분되어 나갈 것이다. 과연 어떤 것이 예의 경우 해당되는 것인가?

말하자면 북통이란 한 마디 속엔 이렇게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뜻인데 사실은 이 정도만도 어렵하여 이야기 한것에 불과한 것이니 쉽지 않은 것이다. 의사가 증상이란 외국어 단어를 진단이란 우리말

로 어떻게 번역해 내는가 하는 것은 그래서 간단치가 않은 것이며, 따라서 그 엄청난 시간과 돈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되는 이치가 이런데 근거한다. 현대 불안이란 생소한 단어는 더욱 여기서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만큼 복잡하고 극히 상징적인 것으로 되어 있어 정말 간단치가 않은 것이다. 다만 크게 둘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하나는 두통, 복통, 사지통, 현기증, 심장뛰기, 불면증, 손떨림, 빈뇨, 관절통, 피부염, 정력감퇴, 해소, 설사 같은 여러가지 신체증상으로 불안을 나타내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 두번째로 초조, 우울, 공포, 강박, 착각, 망상과 같은 감정이나 생각의 언짢음으로 표현되는 것이 있어 치료의 대책이 자연 두가지 원칙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어떻든 표면에 나타난 신체적 또는 감정적 고통과 괴로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 약물치료를 해야 한다. 물리치료라고 하는 전자제품에 의한 것도 이용될 수 있으나 냉정한 비판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약물치료는 대부분의 표면적 증상을 어렵지 않게 해결해준다. 아주 극적인 효과를 갖어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점진적으로 호전되어 일단 긴급한 사태에서 벗어나는 것은 모두 가능해진다. 그러나 이때부터가 중

요하다. 여기서 치료의 전부가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상 불안은 마음속의 갈등, 해결되지 않았던 싸움의 표현이라고 보아 현실과의 타협이 여의치않게 지나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갖는 불안이 무엇인가 밝혀 알려주지 않으면 언젠가는 다시 이른바 신경성 증상을 재현하게 될 것이다.

두번째로 필요한 정신치료가 바로 이점을 해결하는 목적에서 시작된 것이며 이것은 거의 절대적 의미를 갖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그렇다고 이런 정신치료가 어떤 학원에서 강의식으로 해결된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큰 오해이다. 전술한바 신체일부의 통증은 수다한 뜻이 내포돼 있는데 하물며 인간의 마음의 표현이 일률적으로 취급되는 강의식 설명으로 치료가 된다면 그것은 근본부터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 올바른 증상의 번역 즉 올바른 진단이 없고서는 어떤 치료도 무효한 이상, 전문가적 사전에 인간적 바탕을 전제로 활용되지 않고서는 정신치료는 불가능해 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아울러 약물치료도 의심스러워할 것은 뻔하며 특유성에 맞는 정신치료가 항상 뒤 따라야만 비로소 정신병은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 믿어진다.

〈필자=경희의대 외래교수·정신과 전문의·의박〉